

## 教養 讀書의 목표

김 종 철

### 1. 왜 <교양독서의 문제>가 제기되는가?

이 시점에서 교양독서가 문제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그 까닭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당연한 추론이지만 마땅히 청소년들에게 행해져야 할 교양독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거나 청소년들의 독서가 그 길을 잘못 들어서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이 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비추어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일 터이다.

청소년들의 독서와 관련된 우려할 만한 현상을 몇 가지 예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1) 독서의 質과 量의 문제

청소년들의 독서에서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서의 질과 양이다. 우선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 입시에 종속된 교육 상황에서 교양을 쌓기 위한 독서가 자리잡기 힘든 측면도 있다. 그나마 여가에 좋은 책을 읽기 보다는 상업적 통속물에서 위안을 찾는 정도이다. 일반 대중 역시 그러해서 본격문학이나 수준 있는 교양도서는 별로 읽지 않는다. 책을 가장 많

이 읽어야 할 대학생들조차 강의에 필요한 참고교재는 물론 주교재조차 구입하지 않는다. 계간지를 정기구독하는 학생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 시간에 주로 보는 것은 스포츠신문이다. 그나마 읽는 책도 수준 이하의 것들이어서 학생들이 구입해 달라고 도서관에 신청하는 책들은 교수들이 그 수준을 사전에 점검해야 할 정도이다. 대학생들이 이러니 중·고생들의 처지가 어떤지는 불문가지이다.

## 2) 技術로서의 독서

초·중·고 교육이 대학입시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지적하는 일이지만 그 대안은 썩 명쾌하지 않다. 주입식 교육을 탈피하자니 교사의 재충전에서부터 교과과정의 재편과 도서관의 장서수에 이르기까지 풀어야 할 난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 수학능력시험과 논술 시험(대학별 본고사)이 실시되자 학교 현장에서 기껏 하는 일이 신문사설 읽기 아니면 요약이나 논지 전개의 <技術>을 습득하는 일에 주력하는 것이다. 사색을 동반한 독서가 아니라 시험문제풀이를 하고 있는 셈이다. 목적을 수단으로 치환하는 셈씨, 이른바 요령이 교육현장을 지배하는 한 교양독서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3) 대체가능물로서의 독서

학생들에게 “생활하는 중 어떤 상황에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남니까?”하고 물었더니, 상당수가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라고 대답했다.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 하나는 독서란 틈나는대로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다. 즉, 여가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인 셈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독서란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라는 생각이다. 중세의 선비처럼 생활이자 과업이 아니라 일종의 부업이며, 그것도 선

택 가능한 것들 중의 하나인 셈이다. 그래서 ‘심심할 때’,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책을 읽는다는 답변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독서는 속되게 비겨보자면 ‘오징어와 땅콩’의 동격이기도 한 셈이다.

#### 4) <읽는 문화>와 <보고 듣는 문화>

오늘날 청소년들은 책은 별로 읽지 않으면서 영상매체에는 대단한 매력을 느끼고 있다. 독서 대신에 영상매체에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자체는 다텈할 수 없다. 문제는 <읽는 문화>와 <보고 듣는 문화>의 차이에 있다. 영상매체를 통한 보고 듣는 문화는 즉불적 향유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영상매체를 통해 보고 듣는 정보, 또는 즐거움이 지금까지 개인의 인격완성과 문화 발전에 중심적 역할을 해왔던 독서, 곧 읽으면서 사색하는 독서의 역할을 대체하거나 뛰어넘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

독서는 인류가 창조하거나 발견한 가치를 두루 공유함으로써 개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를 발전시키는 행위이다. 이런 독서의 본질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따라서, 독서는 왜 하는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오늘날 재인식되어야 할 독서의 목적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약간의 논의를 해보기로 한다.

## 2. 중세의 독서와 근대의 독서

한 사회 또는 시대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 항용 과거에서 그 진범을 찾는다. 서양의 경우 그것은 古典古代, 즉 인류의 유년시대 또는 황금시대라 불렸던 회랍이었고, 동아시아의 경우 ‘정상적 아이’가 아닌 ‘조숙한 아이’라고까지 불렸던 三代(夏殷周)였다. 서양의 문예부흥시대가 회

람을 전범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는 孔子이래로 三代(王道政治가 실행되던 시대)를 전범으로 삼았다. 唐宋의 古文運動 역시 심원한 사상과 拙朴한 표현이 조화를 이루었던 先秦시대의 古文에 그 기반을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讀書의 경우 그 전범은 아무래도 중세의 지식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지식층은 지배층과 거의 일치했으니(중세 해체기에는 어긋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 사실상 중세를 이끌었던 중심계층이었다. 우리의 경우 上大夫(上 = 讀書人, 從政 = 大夫)라는 용어로 포괄하던 집단이었다. 이들에게 讀書는 生活이었고, 독서의 階梯의 순서까지 사회 전체의 차원에서 정해져 있었다. 소학, 대학 : 논어 : 맹자 : 중용, 시경 : 서경 : 주역, 史記 : 左傳 : 通鑑 등의 순서가 그것이다. 어디까지 읽었느냐가 곧 어디까지 성장했느냐와 같은 것이었고, 독서의 목표는 현실적으로는 官人으로서의 진출이었지만 보편적으로는 聖人君子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朱子 이래의 독서는 '居敬窮理'였다. 즉, 사물을 관통하는 理法의 탐구와 인격완성의 과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곧 독서였다. 물론 科擧 진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부류와 道學派 및 조선 후기의 實學派 사이에 독서의 궁극적 목적에 차이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선비들에게는 이것이 그 기본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달라졌다. 독서와 관련해서 중세와 근대의 차이를 살펴보자면, 첫째, 지식의 대중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중세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共同文語인 漢文으로 기록된 문헌을 지배집단만이 독점했었는데, 이제는 자국어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사회 주도층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근대민족국가의 수립과 관련해서는 '民'에서 '國民'으로의 전환, 근대적 사회, 문화와 관련해서는 '市民'의 등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식의 대중화는 학교교육 중심으로 순조롭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민족 구성원이 '國民'과 '市民'으로 제대로 재통합되거나 형성되었는가 하는 판단에는 여러 가지 유보 사항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근대가 곧 식민지시대와 분단시대로 이어진 데 있다. 그렇지만,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대학(학부)교육이 교양교육의 성향을 강하게 띠는 지금까지도 ‘시민들이 자기 정체성을 가졌다.’고 단언할 자신은 없다. 가혹하게 말하여 오늘날 일반인이 인식하고 있는 시민정신은 ‘고발정신’ 수준이다. 1884년의 갑신정변에서 1894년의 갑오개혁까지를 부르주아지 없는 부르주아지 개혁이라고 말하듯 지금도 ‘시민없는 시민사회’라는데 우리 사회의 약점이 있다고 본다. 게다가 산업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중세에 형성된 인문적 교양에 대한 외경심조차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집단의 자기정체성 상실이 사회 전부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 사례를 들어보자.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 梅泉 黃女이 자결한 이유는 충이 아니라 義理 때문이었다. 그는 「절명시(絶命詩)」에서 조선왕조에 베풀한 적이 없으므로 충을 내세워 죽을 수는 없다고 하고는, 그러나 오백년 동안 선비를 길러온 나라가 망했는데, 그 선비가 살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채만식의 「태평천하」에서 윤직원은 火賊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등 막심한 피해를 당하고 난 뒤 ‘우리만 빼놓고 어서 망해라.’고 절규했다. 19세기 말에 경제적, 신분적으로 상승하던 이 평민은 국가와 사회가 자신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자 서슴없이 이렇게 선언한 것이다.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나아가 개인과 국가 사이에 공동운명의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는 이처럼 극명한 것이다.

이 공동운명의식은 개개인 스스로의 각성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것이다. 독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자기(더불어 살기)와 우주적 존재로서의 자기(자기를 살기)를 동시에 성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오늘날 사회구성원의 자기 정체성 확립에 가장 유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독서의 일반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교양독서는 <사람다운 사람>의 형성을 위한 것이다.

우리의 주제는 초·중·고 학생들의 독서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다. 이 집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우회로로서 초·중·고생들의 사회적 위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날 대학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어, 대학교육이 사회 지도층이나 지적 전문인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 교양교육의 성격을 강하게 띠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교 졸업자의 대다수는 바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이 일반 대중이 받는 제도 교육의 마지막인 셈이다.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학력이 고졸이라는 점은 거꾸로 초·중·고 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현재야 대학 입시를 위해 뒤틀려 있다는 비난을 거둬 받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사회가 발전적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 새로운 구성원을 교육하여 충원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가치 지향에 동참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초·중·고생들의 교양독서가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지 분명해진다. 학교 교육의 목표가 그러하듯이 교양독서 역시 이들을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서 조금 지적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자기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가 무엇을 지향하느냐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와 분단이라는 민족적 고통을 겪었거나 지금도 겪고 있고, 이 과정에서 근대의 자기초상을 분명히 가지지 못한 채 후기산업사회에까지 들어선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까, 근대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의 육성은 여전히 우리 초·중·고 교육의 중심적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중·고생들의 교양독서의 목표 역시 일차적으로 여기에 들 수 있다. 즉,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 속에서 삶의 가치를 찾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돕는 것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고 있는 이들은 Hegel 식으로 말하면 維持的 個人(erhaltende Individuum)에 근사할 것이다. 한 사회의 일상성을 유지하는 사람들, 또는 통상 大衆이라 부르는 집단에 이들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분명한 자기 초상이 없다는 것은 곧 그 구성원들이 확고한 자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문맥에서 독서는 왜 하느냐의 질문을 우리 사회에서 독서는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그 대답은 “(초·중·고생의) 독서는 교양 있는 시민형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민적 교양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뒤따른다. 중세 신분 사회에서는 신분에 따른 외양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文翰은 있는지 여부 등등 그 지표들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근대에는 이러한 지표가 객관화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중세의 ‘士 : 君子’에 대응하는 근대의 ‘시민 : 교양인’이란 등식만 상정하고 있을 뿐이다. 孔子가 평생 사모한 존재가 周公인 것처럼 모방과 추구의 대상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 근대 시민사회의 특징인지도 모른다. 다만 잠정적으로 “자유와 민주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자아와 세계의 관계를 조화롭게 유지하는 시민”으로 규정해 보면 어떨까 한다. 자유와 민주는 근대사회의 이념이고 근대적 개인은 신분적으로 구획되지 않고 개인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의 안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유지적 개인들이 대중성, 일상성에 함몰되지 않는 시민적 삶(창의적 삶, 문화적 삶)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독서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한 인간의 인격을 특정한 역사 발전단계의 사회상에 종속시킬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한 인간에게 사회란 우선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는 인류의 영원한 과제이거니와 어떤 사회를 살든 한 개인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있는 삶을 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리고 인류 역사는 기본적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지향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따라서, 교양있는 시민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는 교양독서의 목표를 보다 보편적인 목표로 확대한다면 <사람다운 사람의 형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4. 교양독서는 <개성적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역시 학생들에게 “생활하는 중 어떤 상황에 「독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까?”라고 물었더니 “타인과의 대화에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대화나 토론 중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의 주체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라고 답변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 답변은 여러모로 음미할 만하다고 본다. 우선 이것은 자신이 속하고 있는, 또는 소속하고자 희망하는 집단의 지적 수준을 상정하고 그것에 도달하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지적 욕구, 向上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여기에 깔려 있다. 그런가 하면 여러 목소리 중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독서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나름 아닌 자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가장 유용하다는 인식인 셈이다.

여기까지 이르는 데는 몇 가지 진단계가 있다.

- 1) 동물과의 구별의식 : 인간은 동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고자 하는 의식적 노력을 한다.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을 겪었다는 단군신화는 인류의 문화가 동물로부터의 구분에서 비롯됨을 말해 준다.
- 2)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 : 伯魚가 孔子의 아들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聖人이 되지 않듯이 모든 인간은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인간의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집적되어 있는 곳이 언어이고 이 언어를 재료로 생각과 사상의 집짓기를 해 놓은 것이 책이다. 따



라서, 세계와 인생을 통시적으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에는 독서가 첩경이다(통시적 간접체험).

- 3) 세계의 확대 : 중세에는 단일 문화권 속의 개별 국가 속에서 살았으나 근대에 와서 세계적 차원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쪽의 발달로 인해 인문적 교양만으로는 현대를 살기가 힘들게 되었다. C. P. Snow가 「두 개의 문화와 과학혁명」이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에는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에 기반을 둔 두 개의 문화가 있고, 그 사이에 단절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듯이 이제는 인문학적 교양에 못지 않게 자연과학적 교양도 중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인식하거나 이해해야 할 세계의 영역이 점차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체적 틀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독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공시적 간접체험).

이상의 단계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독서의 목적이다. 그런데, 옛부터 학문에는 爲人之學과 爲己之學이 있다고 했듯이 독서는 궁극적으로 爲己之學으로 귀결된다. 진리를 체득하여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참된 독서라고 과거의 선비들은 보았거니와 독서를 통한 세계 이해 및 타인의 체험이나 사상의 공유는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세계로부터의 고립을 위한 것은 아니다.

근대에 와서 개인이 유별나게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곧 내면세계의 형성문제로 귀착되었다. 시민사회의 규칙은 지키되 개인의 내면을 어떻게 풍요롭게 가꾸느냐가 근대인의 자기완성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다. 따라서 인류가 쌓아온 문화의 정수를 책을 통해 만나고 대화하는 내밀한 공간이 곧 그러한 내면세계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독서는 <개성적 삶을 살기 위한 것>이다. 중세에는 修己治人, 利澤萬物을 위한 독서가 강조되었다면 근대에는 내면세계를 가진 개성적 삶을 위한 독서가 강조된다고 하겠다.

## 5. 독서는 문화이다

독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다. 어떤 정보를 알기 위해 책을 읽는다고 할 때, 독서는 단지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보가 한 사람에게서 필요한 어떤 사람에게 전달되는 과정, 또는 어떤 정보를 책을 통해 습득하는 과정은 곧 문화이다. 지식 탐구의 결과가 결집된 책 역시 문화이지만 그것이 독자에게 읽혀져 지적 내용이 전파되거나 새로운 지적 결과로 확산되는 과정은 인류 문화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특히 교양 독서는 어떤 특정한 부문에 한정된 지식을 얻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인격형성에 주안을 두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의식주(衣食住)가 인간을 위한 기초적인 문화라면 교양독서는 생활 속의 인간을 인류의 이상으로 이끌어 올리는 고급한 문화이다.

독서를 수단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독서 자체가 인간이 창조해 낸 훌륭한 문화라는 점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정약용이 ‘독서는 인간의 제일 가는 맑은 일(讀書是人間第一件淸事)’이라고 했듯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방법이자 문화이다.